

영원불멸할 조국수호의 천만리

정의는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아무리 참되고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약하면 정의가 부정에 짓눌리게 되고 외곽되게 된다.

이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세계 앞에 각인시켜주신분, 정의는 무엇에 의하여 지켜지고 담보되는가를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날을 맞아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사상을 받들어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세기 90년대 공화국인민이 당한 민족의 대국상과 편이던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을 기회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대한 고립압살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적대세력의 압살책동에 맞서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것이 아니면 굴복하여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가 하는 이 운명의 분기점에 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선 결연히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총대강화의 길을 선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은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고 지어 회개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불꺼진 거리와 마을, 숲속은 공장들 뒤에 두고 전선길에 오르실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겪어야 했던 마음속아픔은 또 얼마나 큰것이었던가.

연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신 숲속은 공장들과 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걷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뜨겁고 아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자신께서 왜 경제사정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

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고 자신의 진정을 터놓으시였었다.

정녕 총대강화의 길에 민족의 자주적존엄이 있고 인민의 생명이 있고 생활인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기때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시며 군력강화의 길을 곳곳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 길에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1000여리에 달하는 전선시찰의 길을 헤쳐가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그마한 패속적으로 풍랑사나운 파도를 헤쳐 초도방어대를 찾으신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혁명일화도 있으며 밤깊도록 집무를 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이른새벽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를 찾으시어 군인들에게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서 자주적군위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신 뜻깊은 화폭도 수놓아져있다.

어찌 그뿐인가. 한말 잘못 디디면 천길벼랑밑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날도 있고 쏟아지는 폭우를 헤쳐가신 장마철 강행군길도 있으며 독설로 야전승용차가 《눈부지》로 변하여 인민군군인들을 울린 잊지 못할 대소환의 강행군길도 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견고결연으로 군력강화의 길은 눈물겹고 희생적인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민족의 긍지가 하늘에 닿고 주체병기들의 장쾌한 퇴성이 지구를 흔들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되는 속에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가 쏟아지고 CNC공작기계가비로가 펼쳐졌으며 드넓은 전야들이 정리되어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사는 반미제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미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민심과 친애비인사적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을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살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불멸의 애국헌신이 있어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민족의 긍지가 하늘에 닿고 주체병기들의 장쾌한 퇴성이 지구를 흔들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되는 속에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가 쏟아지고 CNC공작기계가비로가 펼쳐졌으며 드넓은 전야들이 정리되어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사는 반미제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미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민심과 친애비인사적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을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위대한 혁명실천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자신의 온 심신을 깡그리 바치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부강번영하는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군력은 최대 강해지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도 비상히 높아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공화국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하는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계가 부러움속에 지켜본 이 무진막강한 군력을 마련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절령

공화국인민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중에는 나사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선 초병의 영예와 긍지를 한껏 구가한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도 있다.

이 노래와 더불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인민군대전연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크나큰 행복으로 가슴설레이던 전연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탈하신 품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시고싶으면 좋겠다고 외람된 청을 드렸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전연지휘관들이 나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한결같이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겠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열렬적인 박수를 보내는 전연지휘관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노래는 내가 어려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노래를 부르시였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해 가슴에 총안고 전초에 섰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

노래의 구절 구절에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 주신 사랑하는 조국을 총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조국, 그것은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이고 사랑하는 인민이다.

그 조국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열화같은 조국애와 견인불발의 의지,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공화국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다. 되새겨볼수록 가슴뜨겁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력사적선언과 더불어 온 세계를 진강시킨 주체병기들의 장쾌한 퇴성, 강국건설의 계단들을 초고속으로 날아오른 력사적계기들인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승리, 《11월대사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 형식시험발사의 성공...

정녕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서서어 군력강화에 심신을 다 바치시어 이룩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업적은 쌓으면 하늘에 닿고 펼쳐진 바다를 이를 위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여러 계기에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힘과 넓이 갖든 강위력한 최신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야야 한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다.”

... 그렇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애국의지와 헌신적인 애국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것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열렬한 조국애, 조국수호의 의지를 깊이깊이 전철로 하여 《내가 지켜선 조국》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으니 한없이 귀중한 그대를 지켜 내 한생 총참고 초소에 살리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본 일 남

너를 뜨거워키는 군민의 혈연의 정

불과 석달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하달된 결정에 따라 하는 김정원수님의 특별명령을 받아 안고 악성병마와 싸우는 수도시민들을 찾아 거리와 마을들로 긴급히 전개되였던 조선인민군 군의부본 전투원들이 지난 14일 승리자의 자부심높이 귀로에 울렸다.

경연과 안정을 되찾은 수도의 집집마다, 거리마다, 고요하게 고요하게 못별들만이 반짝이는 이른새벽 행장을 갖추고 인민들의 단장을 깨울새라 전투원들의 대오는 조용히 거리를 떠났다.

낮과 밤을 이은 긴장한 전투의 나날에는 그렇게도 강인했던 용사들이었던건만 친혈육과도 같은 인민들결을 떠나서 석별의 정을 금할수 없어 누구나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화선군인들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어느새 전해 듣고 자조도 훨씬 남은 이른새벽이지만 시민들이 저저마다 약과와 거리들에 펼쳐져왔다.

방역대전의 순간순간 인민들이 그대로 섬세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군인들을 아쉬운 환송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조용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움으로 시민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떠나서는 마음, 보내는 마음, 혈연의 정으로 오고가는 눈물겨운 화폭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정경이었다.

주민들의 재산을 로략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것들은 배상사로 여기는, 그로 하여 인민들에게 불안과 민족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군대들을 오늘날 행성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에는 혼란을 평토로 금방 모를 낸 논란과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가리지 않고 대외와 장갑차로 마구 짓밟아버리고 화염을 뿜어내며 고발하면서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남지 않는다》고 항의한 글이 오르곤 있었다. 지금 이 시각 남조선에서도 미국과 남조선의 방대해 무력이 도처에서 전쟁화약내를 풍기고 전쟁평화를 울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하나 이 땅은 어떠한가. 화선군인들이 떠나간 약과들과 그들의 발자취가 적혀진 거리와 마을들의 집마다에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혈연적인 사랑과 정이 고이 남아있다.

고열로 시달리는 로인의 머리맡을 지켜 꼬박 몇밤을

밝혀 끝내 소생시킨 이야기, 깊은 밤 위급한 입신부의 해산을 도와 조산원이 되었던 이야기, 영애군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넣어준 이야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인민들에게 더 빨리, 더 잘 닿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뜬눈으로 약과에 전투원들, 쫓아도쫓아도 끝이 없는 군인들의 미담들은 그 어디에서나 후에도 인민들속에서 사랑과 정의 미담, 끊을수 없는 군민대단결의 화폭으로 오래오래 전해질것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영도하신 항일대전의 나날에 시련을 둔 이 나라의 군민대단결, 그것은 방물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는 신화를 낳았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쳐부러 친 위대한 전승을 안아왔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오늘날 절세위인의 영도밑에 인민과 군대의 똬튼 힘을 하나로 뭉쳐 위기사례의 아닌 비상방역대전에서도 패승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더욱 뜨거워지는 군민의 혈연의 정, 군민대단결의 힘이야말로 조국수호의 위대한 담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은 나라가 방역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전세계가 경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 참으로 세계보건의 전무후무한 기적이 아닐수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을 놓고 공화국인민들은 90여일간의 날과 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뜻밖에 공화국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된것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 조성된 방역위기사례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한 그 순간으로부터 91일이라는 초긴장의 날과 날이 이 땅에 흘렀다.

과연 그때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에서 무병무탈하여 살게 될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는것을.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 나날에 이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영도따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첫 시기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비상방역사업이 단숨히 보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쟁으로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국가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내세우시고 국가의 총력을 발동하도록 하시였으며 방역사업에 대한 군사화된 지휘체제까지 세워주시였 아니겠는가.

력사를 거슬러 더듬어보면 인류가 발생하여 오일까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을 무리로 앗아간 각종 전염병위기가 존재하였다. 20세기초

에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스빠냐독감에 의해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었던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그때마다 전염병위기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대내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날 전 지구를 죽음에 몰아가는 악성비루스로 인한 전염병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상 곳곳에서 악성비루스에 의한 감염으로 불안과 절망에 몸부림치고 수많은

방역대전을 그 어떤 물질기술수단에 의해서만이나 아니라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치성과 전진합세로 진행하고 승리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공화국에서 최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한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악성전염병에 의한 유역자들을 모두 완쾌시키고 치명률도 0.0016%로써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대비할수 없이 낮은 기록을 세워 전염병위기대응관리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

하였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천 지휘관장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풍물,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철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파와 살점과도 같았다고 하실 때 정말이치 복받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그이의 심중에 나와 우리 가정, 온 나라 인민의 모습이나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무탈하게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행복을 누릴수 있는것이 과연 어느분의 덕이란 말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을 떠나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들에 대해 생각할수 있던 말입니까.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늘 우리 인민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주시니 진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의 어머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감상에 넘치는 이 나라의 민심의 메아리이다.

그렇다. 공화국이 맞이한 오늘날의 승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의 정과 헌신이란 언어로 이 세상 가장 값비싼 승리이며 경애하는 그이만 계시면 무서울것도 두려울것도 없다는 이 나라 인민의 신념이 낳은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이런 영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정과 신뢰와 믿음을 불가항력으로 지니고있는 공화국만이 이룩할수 있는 세계보건의사에 투쟁하는 기적승리이며 영웅조선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운명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시어 이 땅의 천만민민이 리치는 고마움의 인사를 영연한 총칭의 메아리로 후세도록 울려 퍼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유금주



한편의 노래에 비친 영장의 애국의지